

순천시,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친화도시 만든다

시, 시민 공감 행정 서비스·환경관리 정책 추진 노후 슬레이트 철거·생활민원 대응·상수원 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생태를 넘어 경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경 제도시 순천’의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 주환경 조성에 나선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주요 인허가와 정 책 결정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선제적 환경관리를 통해 오염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환경 정 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폐기물, 수질·대기, 소음·진동, 축 사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 소통과 사전 컨설팅을 강화 해 시민의 환경권을 우선하는 공감 행정을 추진한다.

인·허가 대상 여부와 입지 여건 등을 사 전에 안내하고,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추진한다.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과 배출시설은 방 지시설 설치를 강화해 주변 생활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시설은 주 민 수용성과 건강, 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허가 전 주민간 담화와 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시는 환경오염과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 하기 전에 오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소 음·비산먼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 장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 화하고, 사업장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되 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 시한다.

대기·수질·비산먼지·소음 관련 사업장 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과 의료폐기물 배 출자 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손춘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장(오른쪽)이 이사진 최수장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의 증감속·실내공기질·수질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 여와 자동차 배출가스·이륜자동차 배기소 음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 취약계층 및 일반계층 주택까지 지원 범

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철거 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를 통해 방치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촉진하고 주택 지붕 개량 지원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

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남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호 와 상사호의 깨끗한 수질을 지키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 등을 투입해 상수 원 관리지역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순찰 로 불법 어로행위와 무단 형질변경·건축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호소 내 부유물을 꾸준히 처리해 수질오염을 예방 하고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감시초소와 순찰선을 운영하며 특 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상수원 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 고 호소 내 부유물 수거와 수중폭기장치 운영으로 녹조류 번성과 망간 발생을 줄이 는 등 주암호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생활 불편에는 신속하게 대응하 고, 환경오염은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리는 ‘2026 ART VERONA’에 참가해 고흥관광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우주·드론·섬·자연 자원’ 고흥 해외 관광시장 공략

이탈리아 베로나서 홍보관 운영…“차별화된 콘텐츠 상품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다양 한 매력을 알리며 유럽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리는 ‘2026 ART VERONA’에 참가해 고흥 관광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홍보관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유럽 현 지에 알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ART VERONA 전시장 로비에 마련 된 홍보관에서는 나로우주센터를 비롯 한 우주·드론 관광자원과 청정 자연, 섬 ·해양 등 고흥의 대표 관광 콘텐츠를 영

상과 이미지로 선보였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영문 관광지도 와 관광 홍보영상을 제공해 주요 관광 지와 여행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했으며,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 를 활용한 굿즈와 기념품도 함께 전시 됐다.

특히 군은 현지 여행업체와 문화예술 ·관광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우주항공과 섬·해양, 고흥유사축제 등을 연계해 체 류형 관광코스를 소개하고, 유럽 관광

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ART VERONA 참가를 통해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관광 경쟁력을 유럽 현지에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현지 여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흥만 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상품화해 실 질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로 이어가겠 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양만권 한눈에” 파노라마 워크 개방

시·포스코, 제막식 진행…내달 8일까지 시범운영

광양만권 관광명소가 될 광양 구룡산 제철조형물인 ‘파노라마 워크’가 제막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와 포스코 는 최근 구룡산 정상에서 파노라마 워크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성현 광양시장, 이 기연 광양시의회 의장, 이명만 광양시명 소화사업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이회근 포 스크시장, 고재윤 포스코광양제철소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커뮤니케이션본부 장을 비롯해 포스코 관계자, 시민 등 100 여명이 참석했다.

파노라마 워크는 포스코가 지역 협력사 업의 하나로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건립 한 것으로 구룡산 정상(해발 473m)에서 나선형 램프 길이 365m로 광양만 풍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파노라마 워크는 11월 8일까지 시범운 영을 거쳐 포스코가 광양시에 기부채납한 뒤 광양시가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 파노라마 워크 디자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미누엘 몬테세린, 설계는 아이 엔아키텍츠건축사무소가 맡았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파노라마 워크는



광양의 산업과 자연, 역사와 미래를 하나 의 시선으로 잇는 새로운 도시의 상징이 다”며 “광양시와 포스코, 시민이 함께 만 들어 낸 이 공간이 방문객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경험일, 시민들에게는 큰 자부심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파노라마 워크가 광양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랜드마크로 확고히 자리매 김하도록 운영과 관광 콘텐츠 확충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구례,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 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 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방문진료가 필요하 다고 결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 태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 금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구례군 보건의료원과 구례병원 등 2개소다. 방문진료를 희망하 는 대상자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통합돌봄 서 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 로 확인하고,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참여 의료기 관과 연계한다.

또한 대상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방문진료 후 구례군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 면 된다.

대상자의 자력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1000~6000원 수준이며,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구례군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이용 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이 어려운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이용 기 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계 획이다.

장길선 군수는 “이번 사업이 의료기관 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보성, 5대 분야·47개 사업 본격화

상황 점검·브랜드 가치 극대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최근 민 선 9기 군수 공약사항을 5대 분야 47개 사 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약 이 행에 나섰다.

이번 공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약 기본안을 확정된 후, 추진부서별 검토, 공 약 실천 계획 수립, 보고회 등을 거쳐 사업 의 추진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뒤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됐다.

특히 민선 9기는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 는 데 그치지 않고, 민선 7기부터 다져온 기반과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

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과로 이어 가는 데 중점을 뒀다.

확정된 공약은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맞 춤형 복지·교육도시 실현, 미래형 농어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대전환, 살 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과 균형성장 거점도 시 구축, 행정통합 시대를 선도하는 청년·지역경제 성장 플랫폼 구축, 체류형 관광 도시 완성으로 보성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등 5대 분야·4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최종 확정된 공약 사항을 군 누리 집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추진 상황을 점 검할 예정이다. 또 공약이행평가단을 통 해 이행 과정과 성과를 평가한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th66@gwangnam.co.kr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기업 입주 가시화

군, 투자보조금·금융지원 등 의견 공유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의 기업 입주 가시화 되고 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 따 르면 최근 운곡특화농공단지 현장에서 입 주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와 면담을 갖 고 공장 건립 및 입주를 위한 구체적인 의 견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기업의 투자계획과 입 주 일정 등을 확인하는 한편, 202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조성 중인 운곡특화농공단 지의 원활한 공장 건립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 곡성군의 자체 투

자보조금 지원방안, 은행권 대출 등을 논 의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장 확인과 입주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바탕으로 운곡특화농 공단지 입주를 위한 부지 계약 체결을 앞 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기업 입주와 투자 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조속한 활성하 을 위해 기반 시설 정비와 입주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입주 희망 기 업과의 면담을 계기로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